

수 학 보 고 서

소 속	예술체육대학 체육학부(대학(학부)/전공)	
파 견 국 가	미국	
파 견 대 학	Jacksonville State University	
파 견 기 간	시작	2022년 8월(년/월)
	종료	2022년 12월(년/월)

준 비 과 정	국제교류프로그램에 지원하기까지 과정
	어우라미 활동을 통해, 국제교류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친구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나도 이 학생들처럼 해외에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외국어역량과 지원해야 할 학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고, 최종적으로 국제교류프로그램에 지원하였습니다.
	파견교 지원 과정
	미국에서 교환학생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1순위로 정하였고, 그 중 저의 전공에 관련된 공부를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Jacksonville State University 에는 Sports Management 및 Physical Education 전공이 모두 존재하였기에 체육을 전공하는 저에게는 꼭 반드시 가고싶은 학교였습니다.
	파견교에 대해 자격조건을 자세히 살펴보고, 당시에 학교에서의 영어성적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영어면접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서 비교과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놓치기 쉽지만, MALP 프로그램 과목을 이수하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기에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파견국가 출국 준비 과정 (비자, 항공권, 준비물 등)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합격한다면, 파견국가 출국을 준비하는 것이 제일 까다로웠습니다. 비자의 경우, 필요한 서류가 매우 많기 때문에, 체크리스트에 써 있는 모든 서류를 가져가야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항공권의 경우, 가장 빨리 구매하는 것이 저렴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사정에 따라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물의 경우, 유튜브와 구글에서 이전 교환학생들이 어떤 준비를 했는지 많이 참고했습니다. 한국음식을 가져가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되지만, 근처 애틀랜타와 버밍햄에 한국음식을 파는 곳이 몇 군데 있기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의 경우 8월에 출국했기에 겨울 옷을 챙겨 갔지만, 부피를 고려했을 때 현지에서 구매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파견 학교	공항 픽업 & 오리엔테이션
	<p>공항 픽업의 경우, 파견교와 미리 공지를 해주며, 기간내에 예약을 해야 탑승 가능합니다. 애틀란타 공항에서 JSU까지 대중교통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셔트틀을 탔을 때 약 2시간 소요되었습니다. 시간에 대해 상당히 철저하시기 때문에 여유롭게 도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p> <p>학교에 도착하면, 학기가 시작하기전 RA (Resident Assistant) 학생들에게 비공식 오리엔테이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캠퍼스에 대해 알아보고, 필요물품을 어디서 사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공식 오리엔테이션은 모든 국제학생들과 함께 진행되며, 신입생 교환학생뿐만 아니라, 풀타임 학생들과도 모이는 자리이기에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하고 교류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을 주관하는 International House Office 분들은 국제학생들의 전반적인 생활을 관리하시기에 모르는 것이 있으시면 이분들께 질문하시면 됩니다.</p>
	수업 & 학교 활동
	<p>수업의 경우, 본인이 수강하고 싶은 과목들에 대해 세부적으로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일부의 과목들은 학년제한이 있고, 전공제한이 걸려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교수님께 양해를 구하고 허락을 받는다면 이것들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수강했었던 Physical Education 전공의 경우 신체활동이 주를 이루기에 수업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수월했습니다. 하지만 Sports Management 전공의 경우 조별토론 및 보고서를 제출하는 난이도 있는 과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도 미리 알아볼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p> <p>학교 활동의 경우, International House (국제학생+미국학생 공동거주 기숙사) 와 동아리 활동을 추천합니다. International House 에서는 국제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행사들과 활동들을 준비하므로 여러 문화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아리의 활동의 경우 진정한 미국의 학교생활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보드게임, 스포츠, 스터디, 노래, 종교 등 학기초 동아리 홍보 때 지원하시면 됩니다.</p>
	기숙사 및 학교 내 편의 시설
<p>저는 Meehan Hall에서 거주했습니다. 당시 다양한 기숙사가 있지만, 매우 빠르게 정원이 차므로 최대한 빠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저의 경우 외부 기숙사를 이용하라고 했지만, 명지대의 국제교류처 선생님의 도움으로 교내에서 거주할 수 있었습니다. 포드 형태이며, 공동거실을 포함하여 각자의 방을 가지고 있기에 친구들과 과도 잘 교류할 수 있으며, 개인만의 시간을 갖는데도 좋은 숙소였습니다. 특히, 지은지 얼마 안 된 곳이어서 매우 깨끗했습니다.</p>	

	<p>하지만, 가장 추천하는 건 International House입니다. 왜냐하면, 기숙사와 이외의 학비에 대한 장학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인 친구와 1대1매칭을 통해 기숙사를 배정받고 총 40명이 한 건물에서 생활하기에 매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의 상태는 다른 기숙사들과 비교했을 때 무난하지만, 이 공동체만의 활동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친구들과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습니다.</p>
주변 환경	<p>거주지 주변 지역 정보</p>
	<p>아쉽지만, 거주지 주변에 즐길 거리가 많지는 않습니다. 15분거리에 월마트가 있고, 달러제너럴 이라는 한국의 다이소와 비슷한 식료품점도 있기에 필요한 물품을 사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월마트를 갈때는 JSU RIDE 라는 어플을 이용해서 갈 수 있고, 친구에게 부탁하면 좀더 수월합니다.</p> <p>주변에 패스트푸드점들은 정말 많습니다. 맥도날드, 서브웨이, 피자집, 일식집 등이 있고, 24시간 매장은 많지 않습니다. 저녁에 혼자 다니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대도시인 버밍햄과 애틀랜타를 가기 위해서는 우버나 친구의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학교의 셔틀은 최대 월마트 까지만에 가지 않습니다.</p>
	<p>파견 대학 소재지 지역 정보</p> <p>알라바마주의 작은도시인 잭슨빌은 비교적 시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덕분에 한국인들이 별로 없고, 오리지널 미국을 체험하는데 안성맞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지인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 이러한 장점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p>
비 용	<p>등록금 (해당 학생만)</p>
	<p>등록금의 경우 명지대에 등록하면 자동으로 납부가 됩니다. 현지의 금액으로 4995달러 였습니다. 한화에 비해 매우 비싼 금액이므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외에도 International Student Fee, Health/Wellness Course Fee 등 여러가지 부가 금액이 있으므로 여유금액을 준비하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p>
	<p>기숙사 비용 (해당 학생만, 학기당)</p>
	<p>Meehan Hall 기준, 2850 달러였고, 기숙사 중 가장 비싼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만큼 시설이 좋아서 매우 만족하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다른 기숙사들의 경우 2000달러부터 시작하니, 자신이 선호하는 기숙사를 선택하고 지원하시길 바랍니다.</p>
	<p>추가 비용 (교재비, 보험 등)</p>
<p>General University \$800.00 -- Residential Dining Program \$1,870.00</p> <p>본인이 원하는 밀플랜을 선택할 수 있으며 800달러 플렉스 (800달러 이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교내 음식점 사용와 다이닝홀 50회 이용가능) 을 추천합니다.</p>	

	<p>International Student Fee \$150.00 Health/Wellness Course Fee \$30 ID Card Issuance Fee \$10 등이 있었으며, 학교에서 들으라고 하는 보험이 약 500 달러였습니다.</p>
	<p>생활비</p>
	<p>생활비의 경우 본인의 생활스타일에 따라 매우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주변에 돈을 소비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없기에 절약할 수 있고, 다이닝홀에서 밥을 해결하고, 부가적으로 간식만 사 먹는다고 가정했을 때 돈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도 생활이 가능합니다.</p>
	<p>한달 평균 지출 비용</p>
	<p>달러를 썼기에 평균적인 금액을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200~300달러 이내로 썼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숙사와 밀플랜이 있다고 가정했을때의 금액이므로, 본인의 경제사정에 맞춰서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교환학생 기간 동안 느낀 점</p>	
<p>교환학생을 가는 것에 대해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비용도 비용이고, 4학년에 갔었기에 나의 커리어에 도움이 될까에 대해 선택을 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는 것을 선택했고 그 만큼 어떤 과목을 통해 어떤 수확을 할 것인지, 어떻게 인턴십을 얻어서 공부와 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성적과 경험을 모두 챙길 수 있었고 여러 동아리를 통해 미국의 문화를 느끼며 스스로 만족할 만한 교환학생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p> <p>비교적 시골에서 생활하기에, 대도시에서의 삶이 그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만큼 현지인들과의 교류가 매우 많기에 영어실력을 향상시키고 이들과 네트워킹을 하는데 정말 적합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목표와 이루고자하는 바가 분명하다면, 장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JSU를 선택했다면 그에 맞는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hyunu0331@gmail.com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감사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사진 첨부 (최소 5장)</p>	
<p style="text-align: center;"> </p>	

[별첨] 수학보고서

